

나주시, AI방역 매뉴얼 안지켜 부실 논란

초소 분사기 측면 호스 잠가 놓고 바닥만 분사

물탱크 크기 달라도 약품 희석 비율은 똑같아

전남지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의 AI 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최근 영암지역에서 추가로 고병원성 H5N8로 확진 판정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나주시 특별방역본부는 현재 13개 소에 방역초소를 설치·운영, AI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AI방역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AI 추가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기자가 방역초소가운데 금천면 지석대교 제2방역초소와 남



대형트럭이 나주시 금천면 지석대교 제2방역초소를 통과하고 있다. 바닥 분사기에서 방제약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장 희석비율이 물과 1만5000 대 1인 데도 5~7.5배 강하게 사용하고 있어 수질오염마저 우려되고 있다.

철새 도래지인 지석천이 인접한 남평읍 제2, 5, 6초소의 경우 양쪽 차

기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나주시의 허술한 방역체계는 설치된 방역기의 구조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측면에 설치된 악대는 폰도 2차선 양쪽에 설치해 좋았지만 차선을 1차선으로 좁혀 차량을 통과시키고 있었다.

차량이 방역기를 진입하기 전 5~10m부터 약품이 분사돼 충분한데도 30~50m 전부터 분사되기 시작해 오히려 수압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측면 악대는 야간에 접근 후 주간에 분사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 방역 인력들이 지쳐다 보니 느슨해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수요일 농업인 애로 청취 장흥 농업기술센터

장흥군은 매주 수요일을 ‘농업인과 농촌지도사가 만나는 날’로 지정해 현장밀착형 농촌지도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매주 수요일 영농현장으로 나가 농업인들의 애로기술을 해결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과 농업인 20명이 상호 연결 유기적인 멘토-멘티 역할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장 경영 컨설팅을 실시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업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작목이 다양화되는 등 농업인들의 새로운 기술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매월 농업기술 소식지를 발간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과 기술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자 · 중부취재본부장



강진서 중·고등부 럭비대회

(사)대한 럭비협회와 전남 럭비협회가 주최한 중·고등부 스토브리그에 참가한 고등부 럭비팀이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갖고 있다. 이번 리그에는 전국에서 중·고등부 12개 팀(중등부 6팀, 고등부 6팀)이 참가했다. /강진군 제공)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왕인과 떠나는 역사여행, 문화로 즐기는 기(氣) 찬 영암’이란 주제로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에서 45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더욱 강화된 스토리텔링에 의한 왕인 콘텐츠 강화 ▲민관과 방문객의 집단 참여 ▲기(氣)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을 통해 봄의 생동감을 만끽하는 계획이다.

영암 왕인문화축제, 가족과 함께 즐기세요

4월4일부터 나흘간 … 전래문화 놀이마당 등 다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한다.

또한 기존의 교육형 테마축제에 더해 방문객 감성 중심의 일탈과 난장 축제를 구현하는 등 기존 인물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가족과 함께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각국 외국인이 참여하는

‘백사마을 놀이마당’, ‘다문화 북놀음’ 등으로 집단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을 넘어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축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로 주한 외교사절 등 주요 외교 인사를 초청, 개막 행사로 치른다.

체험행사로는 1600여 년 전 왕인 박사가 일본에 전한 백제 선진문화를 대표하는 ‘천자문’, ‘종이’, ‘도기’를 테마로 천자문 배틀·한지 놀이방·토우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왕

인 전래문화 놀이마당’ 등을 준비 했다.

또 ‘월출산 기체함’, ‘사상체질관’ 등 기 테마 프로그램 확대로 ‘기(氣) –의 고장 영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다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끈 ‘왕인 학동 프로젝트’를 전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준비된 일본 진통문화체험, 왕인 따라 달빛걷기, 영암관광 1일 버스투어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들이 직접 몸을 움직여 뒷밭에서 일군 각종 농산물과 임산물 등을 갖고 와서 팔며,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도 나누고 주변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훈훈한 공간이다.

군은 할머니 장터를 다른 재래시장이 열리는 날을 피해 월 12회(0.3, 5, 8일로 끝나는 날) 개장하고,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해 계절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할머니 장터에 오면 신선한 채소를 싸게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후한 인심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정호기자 yongho@



5년만에 위용 드려낸

전라좌수영 거북선

여수시, 26억 들여 복원 내일 준공식

전리좌수영 거북선이 5년여에 걸친 제작과 복원과정을 거쳐 마침내 위용을 드려냈다.

여수시는 19일 오후 3시 중앙동 이순신 광장에서 전라좌수영 거북선 준공식을 갖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복원 계획을 마련해 고증·조사와 기본계획 확보, 자문회의 등을 거쳐 국비를 포함해 26억원을 들여 전통 한선(韓船) 제작기법으로 전라좌수영 거북선을 건조했다. /사진>

기본·실시설계는 종소 조선연구원이 제작은 청해진 선박연구소가 담당했다.

완성된 거북선은 전체 길이 35.3m, 선체 길이 26.24m, 폭 10.62m로 2층 구조를 갖춘 177t 규모의 실물크기다.

설계 과정에서 관련 대학 교수와 항로사학자 등 많은 전문가들이 자문을 거쳐 거북선의 총수를 2층으로 하고, 머리는 용두로 했다.

전통 복원선의 특성상 기둥 역할을 하는 보가 설치되지 않은 대신 내부에 군수물자 등을 적재할 수 있는 내심방 구조로 설계됐다.

관옥선과 같은 크기로 양쪽에 8개의 노가 설치되고 내부 화장실이 없는 구조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 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예우리옷 맞춤대여전문점
T. 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
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
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 X, 핀 X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 12층
대표전화: 062) 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